

# 美서도 맞붙는 삼성·LG전자 5G 스마트폰 선점 노린다 갤S10 5G vs V50 씩큐



갤럭시S10 5G. /삼성전자



V50 씩큐. /LG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 달 미국에서 5G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당분간 미국 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5G 스마트폰의 자리를 얻으며 5G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6일 미국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을 통해 갤럭시S10 5G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이달 18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전망이다. 버라이즌은 앞서 4일 모토로라 '모토 모드'를 통해 미국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첫 5G 상용화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이 제품은 LTE 스마트폰에 5G 통신용 모뎀을

번들로 끼워야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5G 스마트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LG전자는 다음 달 미국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를 통해 첫 5G 스마트폰 V50 씩큐를 출시한다. 국내 출시일은 오는 19일이다. 정확한 미국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미국 출시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프린트는 5월 미국 애틀랜타, 시카고, 달러스, 캔자스 시티에 5G를 상용화하고 올해 하반기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D.C. 등으로 확대

다음달 출시엔 '美 유일' 타이틀 애플, 빨라도 2020년 출시 예정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 굳힐 것"

를 앞두고 있다.

스프린트 일정에 따라 LG전자 V50 씩큐가 삼성전자 갤럭시S10 5G보다 빨리 미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도 나온다.

LG전자는 스프린트 출시 이후 버라이즌 등 타 통신사에, 삼성전자는 버라이즌 출시 후 타 통신사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5G 시장 초기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샤오미 등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꼽히지만 화웨이, 샤오미 스마트폰은 미국에 정식 출시된 전례가 없다.

이 지역 1위 사업자인 애플은 2020년, 늦으면 2021년에 5G 통신이 가능한 아이폰을 내놓을 예정이다. 애플은 5G용 스마트폰 칩을 구하기 위해 인텔, 퀄컴, 삼성전자 등에 요청을 했으나 이들이 모두 난색을 표명해 5G용 스마트폰을 경쟁사들보다 늦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5G 서비스를 계기로 LG전

자가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 스마트폰 시장의 지난해 점유율은 애플이 38.0%로 1위였으며 삼성전자(26.5%), LG전자(15.9%)가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5G가 상용화됐지만, 전국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면 한국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5G를 선점하면 선발업체란 지위를 공고히 하게 돼 프리미엄 브랜드란 입지를 굳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이동통신 3사 5G 요금제 비교

U+ 5G		kt 5G		SKT 5G	
LG		KT		SKT	
데이터	월정액(원)	데이터	월정액(원)	데이터	월정액(원)
9GB	55,000	8GB	55,000	8GB	55,000
150GB	75,000		80,000	150GB	75,000
완전 무제한	85,000	완전 무제한	100,000	완전 무제한	89,000*
	95,000		130,000		125,000

12월31일까지 제공 이후 각각 200·250GB

12월31일까지 제공 이후 연장 여부 검토 \*24개월간 할인(95,000원 → 89,000원)

연말뉴스 자료/LG유플러스, KT, SKT

## 하현회 부회장 “프로가 돼라” 신입에 당부

(LGU+)

신입사원 78명과 간담회 가져  
구성원간 '강한 팀워크'도 강조

“철저하게 준비해 실행하는 프로가 돼야 한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78명에 이 같은 ‘프로정신’을 당부하면서 “프로들은 스스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요하게 실행한다. 이 같이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보기 어려운 남다른 프로 신입사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강한 팀워크’도 주문했다. 하 부회장은 “LG유플러스가 1등이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목표를 향해 일사 분란하게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강한 팀워크 발휘가 필요하다”며 “선배들과 함께 팀워크를 발휘해 5G 일등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G유플러스는 우수 인재 확보에 심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이 10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2019년 입사한 신입사원 78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 “5G, 이 돈 내고 쓸 수 있을까?” 저가 요금제는 용량 턱없어

>> 1면 '최우뚱돌 5G...'서 계속

김연학 서강대 기술전문대학원 교수는 “LTE도 초기 때 잘 안 터지면 3G를 번갈아가며 이용했듯이 상용화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5G는 LTE나 3G 보다 주파수 범위가 넓고 5G 장비 공급이 원활치 않고 투자비용이 큰 만큼 2~3년 정도 망 구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망 준공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품질 이슈가 나올 것은 예상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락가락 ‘5G 요금제’...저가 요금제로는 5G 이용에 ‘무리’

네트워크 문제 이외에 5G 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연이어 내보였지만, 총량 제한 등의 논란을 빚자 요금제 수정에 나서고 있다.

중저가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이동통신사들은 3사 모두 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이기도 했다. SK텔레콤과 KT는 월 8기가바이트(GB), LG유플러스는 9GB를 제공한다. 그러나 진정한 5G 콘텐츠를 즐기기에 데이터량

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가상현실(VR) 콘텐츠를 1분 동안 이용하면, 데이터가 9.9GB 정도 소모된다. 1시간 가량 시청하면 데이터 소모량은 최대 25~30GB에 달한다. 월 8~9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는 하루 쓰기도 벅찬 용량이다.

KT의 경우 전산 약관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 조항에 데이터 일 53GB 초과 사용의 경우 속도 제어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아 ‘꼼수’ 지적을 받기도 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약관에 이 같은 총량 제한 문구가 적혀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일일 사용량 제한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T 관계자는 “불법 사용이나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최소 장치를 뒀던 것”이라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한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5G 요금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싼 편은 아니다”며 “망 투자 비용도 수준권에 달하니 만큼 재무적인 상황도 고려한 적정 요금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삼성전자 ‘QLED’로 진달래 작가 작품 완벽구현



삼성전자 QLED 디스플레이가 ‘진달래 작가’ 작품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삼성전자는 1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화관에서 열리는 김정수작가 개인전 ‘진달래-축복’에 미디어아트 9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20년 이상 진달래를 소재로한 작품을 만들어와 ‘진달래 작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국인 특유의 사랑과 정, 그리움 등 정서를 표현해왔다.

삼성전자 QLED TV는 김 작가가 만드는 생애 첫 미디어 아트를 구상에서 완성까지 함께했다. 4000니트 밝기 높은 명암비와 색 재현력으로 작가가 표현하려는 색채와 꽃잎 변화 등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이다.

김 작가는 “진달래 연작에서 무엇보다 공을 들인 부분은 진달래 꽃잎 고유

의 색감 표현”이라며 “첫 미디어아트를 준비하면서 일반적인 스크린으로 의도한 색감을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QLED’와 ‘더 프레임’을 만나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파스함과 총만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5월부터 작품 중 3점을 ‘더 프레임’ 아트스토어에도 추가할 예정이다. 더 프레임 사용자는 김 작가의 작품을 일상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김재용 기자 juk@